

중학교 학습자들의 모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 사이의 관계 분석

배은실*
아주대학교
맹은경
아주대학교

Bae, Eunsil & Maeng, Unkyoung. (2012). Correlation among L1 reading and L2 reading strategy use, and the levels of L2 reading proficiency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13(4), 293-3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mong L1 reading and L2 reading strategy use, and the levels of L2 reading proficiency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143 students from 7th to 8th grade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ponding to 5-Likert self assessment questionnaire. The methods of correlation and MANOVA of SPSS ver. 18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L1 and L2 reading strategy use, and a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L2 reading strategy use and the levels of L2 reading proficiency.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the levels of L2 reading proficiency and L1 reading strategy use. Second, the use of L2 reading strategies and the levels of L1 reading proficiency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s of students L1 reading strategy use. For example students of the high-level group used more L2 reading strategies than those of the mid-level group; students of the mid-level group used more L2 reading strategies than those of the low-level group whereas only the levels of L2 reading proficiency of the high- and low-level groups could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he ability of using L1 reading strategy affects the ability of using L2 reading strategy strongly and it also weakly affects the level of L2 reading proficiency.

[L1 and L2 reading strategy/L1 and L2 correlation/L1 transfer
모국어와 외국어 읽기전략/모국어와 외국어 관계/모국어 전이]

* 제1저자: 배은실, 교신저자: 맹은경

I. 서론

읽기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능력으로써(Nunan, 2003) 목표언어 입력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EFL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읽기는 또한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교과 내용 학습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Nunan, 2003). 따라서 학습자의 읽기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읽기전략이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읽기능력과 읽기전략의 관계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의 읽기능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읽기전략을 활용하며(Anderson, 2005; Garbe, 2004) 읽기전략 지도를 통해 영어 읽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U. Maeng, 2010; Sailor & Price, 2010; Sporer, Brunstein & Kieschke, 2009). M. Song(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전략, 문법지식, 어휘능력,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흥미와 같이 독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읽기전략이 영어 독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송석요(2004) 또한 어휘와 읽기전략이 읽기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휘 교육과 함께 읽기전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습자의 읽기능력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읽기전략이라는 것이다.

한편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모국어 능력이 외국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Aebersold & Field, 1997; Cummins, 1984, 2009; Goodman & Flores, 1979). 읽기 과정에서 습득한 모국어 읽기전략이 자동적으로 외국어 읽기 과정에 전이된다는 것이다(Goodman & Flores, 1979). 또한 Cummins(1984)는 이중 언어 교육에서 한 언어로 읽기·쓰기 학습이 이루어지면 그 기저에 있는 인지적 능력까지 함께 학습되며 이러한 인지적 능력은 다른 언어의 읽고 쓰는 능력까지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Alderson(2000)은 외국어 읽기를 모국어 읽기의 하위 과정이 아닌 읽기능력과 어휘 및 문법적인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독특한 과정으로 규정하였으며 Aebersold와 Field(1997)는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당시의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상태가 모국어 읽기능력과 메타인지적 지식의 정도와 함께 외국어 습득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 언어를 통해 습득된 개념과 읽고 쓰는 기술과 학습전략은 다른 언어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Cummins, 2009).

이러한 읽기전략의 활용과 모국어와 외국어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영어 학습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모국어와 외국어 전략 활용이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 연구

결과로 나타난 바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국어 능숙도, 영어 능숙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영어 읽기전략 지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읽기전략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영어 능력별 영어 읽기전략 활용 혹은 영어 전략 활용에 따른 독해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어 전략과 영어 전략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영어 교육에 있어서 문자 언어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어 읽기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모국어 읽기와 영어 읽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중학교 학생에게 적합한 읽기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및 영어 읽기 능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어 읽기전략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학습자들의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어 읽기전략의 활용 수준에 따라 중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에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읽기전략과 읽기능력

읽기란 ‘이해’를 목적으로 독자가 지문의 내용과 배경지식을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Nunan, 2003). 읽기 과정에는 상향식 과정, 하향식 과정, 그리고 상호 작용적 과정이 있다. 우선 상향식 과정은 낮은 단계의 읽기 과정으로 철자에서 단어, 구, 문장 순으로 의미를 해독해 나가므로(Cohen & Macaro, 2007; Stanovich, 2000) 수동적이고 단선적인 경향이 있다. 즉, 독자는 지문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이들로부터 의미를 구성해간다. 하향식 과정은 높은 단계의 읽기 과정으로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독자는 지문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면서 의미를 생성해나간다(Cohen & Macaro, 2007; U. Maeng, 2010; Nunan, 2003). 또한 문서 자체보다는 독자의 인지구조 안에 저장된 사전지식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저자의 의도 및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 추측 한다(정승영, 2006). 상호작용적 과정은 하향식 방법과 상향식 방법을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능숙한 독자는 지속적으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문을 이해해 나간다는 것이다(Brown, 2001; Cohen & Macaro, 2007; Grabe & Stoller, 2002).

읽기전략이란 학습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선택 사용되는 정신적 과정으로(장진태, 이지현, 2010; Cohen, 1990) 여러 방식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Block(1986), O'Malley와 Chamot(1990), Oxford(1990)와 Brown(2001)의 전략 분류 체계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읽기전략 분류 체계

학자	전략 종류	세부 전략
Block(1986)	전반적 이해 전략	◦ 내용예측, 구조인식, 정보통합, 지식과 연상 이용, 행동언급, 이해점검, 행동수정, 감정적 반응하기
	세부적 이해 전략	◦ 의역, 다시 읽기, 질-문장에 대한 의문, 단어에 대한 의문, 어휘문제 해결
O'Malley와 Chamot(1990)	초인지전략	◦ 선택적 주목, 계획, 모니터, 평가하기
	인지전략	◦ 리허설, 조직화, 추론, 요약, 연역, 이미지 활용, 전이, 융합하기
Oxford(1990)	사회정의적전략	◦ 협동, 질문하기, 혼자 말하기
	인지전략	◦ 연습, 메시지 보내고 받기, 분석 추리, 입력과 산출 구조화
	초인지전략	◦ 학습 중심, 학습 계획, 학습 평가
	기억전략	◦ 머릿속 연결(mental linkage), 복습, 이미지와 소리, 동작 가져오기
Brown(2001)	보상전략	◦ 추측, 말하기 쓰기 한계 극복하기
	정서적전략	◦ 불안완화, 자신 격려하기, 감정 조절하기
	사회적전략	◦ 질문, 협동, 공감하기
Brown(2001)	하향식 과정	◦ 글의 목적 이해, 의미파악을 위한 훑어읽기, 의미망 활용, 추측, 답화 표지어 활용, 축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파악, 묵독하기
	상향식 과정	◦ 문자소 규칙이나 패턴 사용, 특정정보 찾아 읽기, 어휘 분석하기

표 1과 같이 Block(1986)은 전략 종류를 전반적 이해전략과 세부적 이해전략으로 나누고 읽기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에 비해 전략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O'Malley와 Chamot(1990)이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사회정서전략으로 학습전략에 중점을 둔 반면, Oxford(1990)는 여기에 기억전략, 사회전략, 정서전략을 따로 구분하고 언어사용의 측면을 강조한 보충전략을 추가하여 6개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Dryer와 Oxford(1996)는 TOEFL 점수와 전략 활용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전략뿐 아니라 보상적전략도 읽기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Dole, Nokes와 Drits(2008)는 유능한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인지적 전략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Brown(2001)은 상향식과 하향식 읽기 과정과 관련하여 읽기전략을 분류하였는데 상향식과 하향식 전략 활용에 대해 언어능력이 우수한

학습자일수록 상향식과 하향식 읽기전략을 모두 사용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읽기전략과 읽기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중 박영예(1999)의 연구는 대학생의 영어 학습전략을 분석한 연구로써 읽기 능력이 뛰어난 상위집단 학생들이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였고 구조 이해 전략과 상위 인지전략의 사용이 읽기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전략 사용과 영어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김미래와 서천수(2007)의 연구에서는 영어 학업성취도가 상-하, 중-하에 속하는 집단에 따라 영어 전략 사용의 차이를 보였으며 초인지전략 활용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진태와 이지현 (2010)은 중학생 영어 학습자의 수준별 독해전략을 연구하였는데 상위권 학습자의 경우 하위권 학습자에 비해 읽기전략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상기의 연구결과를 통해 읽기전략과 읽기능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읽기능력에 따라 읽기전략의 사용이 다를 뿐 아니라 읽기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더 많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전략 학습이 영어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지도 연구에서 대학생에게 초인지전략을 지도한 결과 영어 읽기능력 향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영어 읽기능력이 중간 및 낮은 단계에 속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윤용진, 원명옥, 강후동, 2001). 또한, U. Maeng(2010)은 132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을 활용한 명시적 읽기전략 지도를 한 결과 학생들의 읽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인지적, 보상적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혜리와 김영미(2010)는 아동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전략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이 읽기전략을 활용하여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비판적·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등 읽기 이해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읽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할 전략 및 지도 순서 외에도 모국어 읽기전략과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도할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2. 모국어와 외국어의 관계

모국어와 외국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모국어 읽기능력이 외국어 읽기능력에 전이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Anderson, 1984; Clarke, 1980; Erlor, 2004; Sarig, 1987; Stevenson, Schoonen & de Glopper, 2003). 모국어 읽기능력이 외국어 읽기에 전이되기 때문에 모국어 읽기를 잘 하면 외국어 읽기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Carrell, 1991; Goodman & Flores, 1979; Hudson, 1982). Drucker(2003)는 모국어 읽기능력이 높은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던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외국어 텍스트를 읽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Hardin(2001)은 모국어에서의 전략 활용 능력이 외국어 능력보다 외국어 전략 활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Goodman과 Flores(1979)는 일찍이 모국어 전략이 외국어 읽기 과정에 자동적으로 전이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복 읽기,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 같은 텍스트 계속 보기, 멈춰서 생각하기(pausing and thinking about the text), 정보 시각화하기 등과 같은 전략은 외국어 능력과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외국어 읽기 과정에 전이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Cummins(1984)는 언어 발달의 전이를 언어상호의존가설(language interdependence hypothesis)로 설명하였다. 언어 능숙도 수준은 표면적 수준과 내면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마다 어휘, 문법, 발음 등과 같은 표면적 수준은 다르지만, 그 저변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읽기전략 사용, 개념적 지식, 관련 분야 지식, 상위 단계의 사고 능력 등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작용됨으로 모국어 학습 과정에서 습득된 공통적 언어 능숙도는 외국어 학습 과정에 전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읽기와 쓰기의 경우 인지적·학업적 과정이 많이 요구되는 탈맥락화된 기능이므로 언어간 전이가 가능하며, 모국어에서 습득된 읽기와 쓰기 기술은 외국어 읽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Fitzgerald(1995)는 읽기 과정에서 모국어 학습자나 외국어 학습자가 보여주는 인지적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모국어 학습자와 외국어 학습자가 유사한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이해력을 점진하고 선행 내용을 확인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이상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국어 읽기와 외국어 읽기는 공통적인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발달된 인지적 능력이 외국어 읽기 과정에 전이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시 인지적 능력을 다시 습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Clarke(1980)는 외국어 능력이 낮을 경우 모국어 읽기 기술이 외국어 읽기에 전이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즉,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 읽기와 외국어 읽기 사이에 높은 상관을 보이며 모국어 읽기능력이 외국어 읽기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din, 2001). 반면에 외국어 능숙도가 낮은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에서 습득된 기술이 외국어 읽기에 전이되지 못한다(McLaughlin, Rossman & McLeod, 1983). 이것은 글을 읽는 동안 모르는 어휘나 문법이 있으면 이를 파악하느냐 의미 구성을 위한 인지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국어 읽기 기술이 외국어 읽기에 전이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되어야 한다(Clarke, 1980; Cziko, 1980). 그러므로 모국어 읽기 기술에 앞서 외국어 능숙도가 외국어 읽기 과정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모국어 읽기의 전이는 전략의 종류와 외국어 능숙도에 따라 조건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외국어 읽기 학습은 모국어 읽기와 달리 반자동적 혹은 통제적 과정(McLaughlin, Rossman & McLeod, 1983)에서 높은 단계의 읽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외국어 학습자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외국어 능숙도로 인해 ‘단어에 집중하기’(Focusing on Individual Words), ‘문법 분석하기’(Pausing for Grammatical Difficulties)와 같은 상향식 전략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모국어에서 전이된 높은 단계의 하향식 전략인 ‘예측하기’, ‘확인하기’, ‘추론하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Davis & Bestodeau, 1993). 그러나 이러한 모국어의 하향식 읽기 전략이 학습자의 낮은 외국어 능력으로 인해 외국어 학습에 전이될 수 없기 때문에 교수자의 전략 지도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다(Block, 1986; Hudson, 1982).

국내에서도 모국어 읽기와 외국어 읽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어 왔다. 성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의 경우 모국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전략을 외국어 읽기에서도 활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U. Maeng, 2005). E. Kim(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전략을 ‘의도적 주의 전략’(Intentional and Carefully Planned Strategy: ICPS), ‘직접적 지문 작업 전략’(Strategy Working Directly with Texts: SWDT), ‘기초 지원 장치 전략’(Strategies for Basic Support Mechanisms: SBSM)으로 나누어 전략 지도를 한 후 모국어 전략의 전이와 외국어 전략 지도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텍스트에 있는 정보에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하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와 같은 SWDT만이 모국어로부터 자동적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은경(2006)은 272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국어 읽기능력과 읽기에 대한 불안이 영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어 읽기능력이 ‘상’인 집단의 경우에 국어 읽기능력이 영어 읽기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영어 읽기능력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 Kim(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국어의 읽기 경험이 영어 읽기에도 영향을 미쳐 국어 읽기를 많이 한 학생이 영어 읽기도 많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어 어휘능력이 향상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 Park(2006)의 연구는 초등학생의 국어 문해 능력과 영어 문해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국어 문해능력이 성공적으로 영어 문해능력을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귀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진원화, 2008)에서는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 국어 능력이 전략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모국어 읽기와 외국어 읽기 사이에 읽기 전략의 전이는 가능하나 학습자의 외국어 능숙도와 전략의 종류 등에 따라 전이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전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외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읽기전략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읽기 전략 지도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국어 읽기능력 및 영어 읽기능력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D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각 2개 반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설문 혹은 성적 등 주요 연구 자료가 누락된 14명을 제외하고 총 14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인원수	중등 1학년		중등 2학년		계	
	N	%	N	%	N	%
남학생	39	27.27	40	27.97	79	55.24
여학생	35	24.48	29	20.28	64	44.76
계	74	51.75	69	48.25	143	100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은 1학년이 74명, 2학년이 69명이며, 이 중 남학생이 79명, 여학생이 64명으로 남학생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46.9%로 나타났고, 3학년 이전부터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학생은 53.1%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79.7%는 학교의 정규 영어 수업 외에 별도의 영어 수업을 현재 받고 있으며, 57%의 학생은 국어 학원이나 논술 학원 등에서 국어 읽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절차 및 도구

연구 대상자들의 영어 읽기전략 및 국어 읽기전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와 국어 읽기전략 설문지를 5점 리커트 척도 유형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읽기전략 설문은 자가응답 설문으로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전략으로 나누어 2차례 진행되었다. 먼저, 영어 읽기전략 설문을 학습자 배경 설문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2주 후 다시 국어 읽기전략 설문을 별도로 실시하여 영어 읽기전략 설문의 내용이 국어 읽기전략 설문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읽기전략 설문지는 Oxford(1990), O'Mally와 Chamot(1990)의 읽기전략 유형을 기본으로, Oxford(1990)의 언어 학습전략 목록과 U. Maeng(2006a, 2006b, 2010)의 설문 목록, 김미래와 서천수(2007)의 Oxford 언어 학습전략 사용설문지 한글본을 참고하여 읽기전략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여 제작하였으며 설문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읽기전략 설문 구성

전략	사용 기술	영어 읽기 전략 문항	국어 읽기 전략 문항	
직접적 전략	인지전략	생각 빨리 찾기, 정보 빨리 찾기, 연역적으로 사고하기, 번역하기*, 표현 분석하기, 요약하기, 하이라이트하기, 반복하기	1~8	1~7
	보상전략	익숙한 어휘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내용어 활용하여 전체 의미 알기, 정황 활용하기, 추론하기, 배경지식 활용하기, 시각자료 활용하기	9~14	8~13
간접적 전략	초인지전략	주의 기울이기, 언어학습에 대해 알기,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 연습할 기회 찾기, 언어 과제 계획하기, 스스로 모니터하기, 스스로 평가하기	15~21	14~20
	사회정서전략	확인하기 위해 묻기, 친구들과 협력하기, 문화적 이해 개발하기, 긍정적 말하기, 스스로 보상하기, 긴장 완화하기	22~27	21~26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읽기전략 유형은 Oxford(1990)와 O'Mally와 Chamot(1990)의 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인지전략과 보상전략, 초인지전략과 사회정서전략,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의 각 전략 별 문항 구성은 인지전략 8개, 보상전략 6개, 초인지전략 7개, 사회정서전략 6개로(총 27문항) 구성하였으나 영어 읽기전략과 국어 읽기전략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인지전략 중 '번역'에 해당되는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국어 읽기전략 설문지 또한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의 질문 문항과 동일하게 총

26문항으로 구성하고 표현과 어휘만 조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설문 조사에 앞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Cronbach $\alpha=.943$)와 국어 읽기전략 설문지(Cronbach $\alpha=.870$)의 문항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의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시행한 지필고사(영어) 점수를 연구 대상자들의 영어 읽기능력 점수로 활용하였다. D중학교의 지필고사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서술형 문항이 6개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읽기능력과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읽기능력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읽기능력 평가 점수로 활용하였다. 상관관계 및 다변량 분석(SPSS ver. 18)을 활용하여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그리고 영어 읽기능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 간의 상관관계

중학교 학생들의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 사이의 Pearson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표 4
변인간 상관계수

		영어 인지	영어 보상	영어 초인지	영어 사회 정서	영어 전략 평균	영어 읽기 능력
	상관계수	.682**	.576**	.549**	.543**	.679**	.316**
국어 인지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N	138	136	136	138	129	140
	상관계수	.611**	.584**	.461**	.503**	.622**	.264**
국어 보상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2
	N	134	132	132	134	125	136
	상관계수	.563**	.376**	.566**	.613**	.611**	.203**
국어 초인지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17
	N	136	134	134	136	127	138

국어 사회 정서	상관계수	.511**	.392**	.496**	.612**	.595**	.137**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108
	N	136	134	134	137	128	138
국어 전략 평균	상관계수	.692**	.542**	.588**	.678**	.720**	.29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1
	N	127	125	125	128	119	129
영어 인지	상관계수	1	.735**	.745**	.642**	.903**	.395**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N	141	137	138	139	132	141
영어 보상	상관계수	.735**	1	.602**	.486**	.829**	.35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N	137	139	135	137	132	139
영어 초인지	상관계수	.745**	.602**	1	.733**	.886**	.35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N	138	135	139	137	132	139
영어 사회 정서	상관계수	.642**	.486**	.733**	1	.842**	.325**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N	139	137	137	141	132	141
영어 전략 평균	상관계수	.903**	.829**	.886**	.842**	1	.41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N	132	132	132	132	132	132

Note. *P<.05, ** P< 0.01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은 모두 각각의 대응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어 읽기전략 평균과 영어 읽기전략 평균 사이에 .720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략 별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전략, 보상전략, 초인지전략, 사회정서전략 순으로(.682, .612, .584, 566) 모두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전략간의 상관관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모국어 읽기전략과 외국어 읽기전략 간의 관계를 밝힌 여러 선행 연구 결과(Anderson, 1984; Clarke, 1980; Erler, 2004; Sarig, 1987; Stevenson, Schoonen & de Gloppe, 2003)처럼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전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영어 읽기전략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영어 읽기전략 평균과 영어 읽기능력 간에 .414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보상전략, 사회정서전략 순으로(.395, .356, .351, .325)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인지적 전략이 영어 읽기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박영예, 1999; 장진태, 이지현, 2010; Dryer & Oxford, 1996; U. Maeng, 2010)에서 보고 되었듯이 영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할수록 영어 읽기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어 읽기전략 평균과 영어 읽기능력 간에 .294라는 상관이 있음이 계측되었다. 이것은 국어 읽기전략 평균과 영어 읽기전략 평균사이의 상관계수(.720)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지전략, 보상전략, 초인지전략, 사회정서전략 순으로(.316, .264, .203, .137)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국어 인지전략이 영어 읽기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어 읽기전략 활용과 영어 읽기전략 활용과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영어 읽기 전략 활용과 영어 읽기능력 간의 관계, 국어 읽기전략 활용과 영어 읽기능력 간의 관계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학생일수록 영어 읽기전략도 많이 활용하고 이것이 영어 읽기능력에 반영되어 국어 읽기 전략과 영어 읽기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Hardin(2001)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게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능력보다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만으로 국어 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전략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영어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단할 수 없으므로 국어 읽기전략에 따라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의 경우에도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양류상관계수가 유의확률 .001이상에서 각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62; -.098). 학년과 영어 전략 활용 및 영어 읽기능력 사이에 관계의 추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확률적으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 다변량분석을 통해 학년에 따른 차이 검증을 함께 시도하고자 한다.

2. 국어 읽기전략의 활용 수준에 따른 변인 분석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 및 영어 읽기능력 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국어 및 영어 읽기전략을 세부전략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 전략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국어 읽기전략은 그 활용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1~2.5를 하, 2.51~3.5를 중, 3.51~5를 상 그룹으로 구분하고 국어 읽기전략의 활용 수준에 따라 어떻게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이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 영어 읽기전략 및 영어 읽기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놓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변량분석의 결과 표 5와 같이 국어 읽기전략은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의 람다=.609/P=.000).

표 5
다변량분석

	Wilks의 람다	F	유의확률	개체 간 효과 검정	F	유의확률
국어 읽기 전략	.609	15.644	.000*	영어읽기전략	35.122	.000*
				영어읽기능력	4.650	.011*
학년	.987	.705	.495	영어읽기전략	.892	.347
				영어읽기능력	.108	.744

*p<.05

표 5의 결과를 통해 국어 읽기전략 활용 정도에 따라 영어 읽기전략의 활용과 영어 읽기능력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체간 효과검증에서도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의 유의확률이 각각 .000(F=35.122), .011(F=4.65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능력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학년의 경우 유의확률 .495로 영어 읽기전략 사용 및 영어 읽기능력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 중학생의 경우 국어 읽기전략 활용 수준에 따른 영어 읽기전략 활용의 차이나 영어 읽기능력의 차이는 학년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국어 전략 활용 정도에 따른 상·중·하 집단간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국어 전략의 활용의 정도에 따라 구성된 상·중·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상·중, 중·하, 상·하 집단 간에 영어 읽기전략 활용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영어 읽기 능력의 경우는 상·하 집단 사이의 차이만이 검증되었다.

영어 읽기전략 활용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 읽기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한 ‘상’ 집단에서는 영어 전략 활용 평균이 3.5081로, ‘중’ 집단의 경우 3.0246로, ‘하’ 집단의 경우 2.0523 로 나타났다. 즉, 국어 읽기전략 활용 정도가 ‘하’인 집단보다는 ‘중’인 집단에서 ‘중’인 집단 보다는 ‘상’ 인 집단에서 영어

읽기전략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 할수록 영어 읽기전략도 더 활발히 활용한다는 관계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국어 읽기전략의 활용 정도가 영어 읽기전략 활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국어 읽기전략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여러 선행연구 결과(이은경, 2006; Anderson, 1984; Clarke, 1980; U. Maeng, 2005; Y. Park, 2006; Sarig, 1987)와 더불어 증명하고 있다.

표 6
국어 읽기전략 사용 수준에 따른 영어 읽기전략 및 영어 읽기능력

국어 읽기전략 활용 수준별 집단	기술통계			국어 읽기전략 활용 집단간 다중비교		
	평균	표준 편차	N	국어 전략 집단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	3.5081	.58819	28	상-중	.16936	.000*
				상-하	.11438	.000*
중	3.0246	.44331	76	중-상	.15048	.000*
				중-하	.11438	.000*
하	2.0523	.71930	14	하-상	.15048	.000*
				하-중	.16936	.000*
상	70.6250	27.05807	28	상-중	6.20608	.057
				상-하	9.18899	.013*
중	56.2118	28.02205	76	중-상	6.20608	.057
				중-하	8.16463	.303
하	44.1000	29.41402	14	하-상	9.18899	.013*
				하-중	8.16463	.303

*p<.05

한편 국어 읽기전략에 따른 영어 읽기능력에 대한 사후검정 차이를 살펴보면,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한 ‘상’ 집단과 이를 적게 활용한 ‘하’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상’집단과 ‘중’집단, ‘중’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어 읽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 ‘상’ 집단의 영어 읽기능력 평균 점수는 70.6으로 ‘하’인 집단의 평균 점수인 4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높을 수록 영어 읽기전략 또한 많이 활용하게 되고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영어 읽기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간접적으로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Hardin(2001)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로써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영어 읽기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써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영어 읽기능력,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영어 읽기능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720)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영어 읽기능력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294). 또한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세부 전략 중 인지전략의 경우가 다른 전략보다 상관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학생일 수록 영어 읽기전략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어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학생일수록 영어 읽기능력도 높게 나올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학생일 경우 영어 읽기능력도 다소 높아 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국어를 통해 습득한 기술이 외국어 학습에 전이된다는 주장(Anderson, 1984; Carrell, 1991; Clark, 1980; Goodman & Flores, 1979; Hudson, 1982; Sarig, 1987)과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결과(이은경, 2006; U. Maeng, 2005; Y. Park, 2006)와 더불어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활용 및 영어 읽기능력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다변량분석 결과 국어 읽기전략 수준에 따른 영어 읽기전략 및 영어 읽기능력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읽기전략은 국어 읽기능력의 상·중·하 수준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영어 읽기능력에 대해서는 국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상’집단과 이를 적게 활용하는 ‘하’ 집단 사이에서만 영어 읽기능력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더불어 국어 읽기전략이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간접적으로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Hardin(2001)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로써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과 더불어 국어 읽기전략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에 근거하여 읽기 지도 및 영어 읽기 학습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읽기전략 사용 능력이 영어 읽기전략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영어 읽기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어 읽기전략 지도와 영어 읽기전략 지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 결과(김혜리, 김영미, 2010; 윤웅진, 원명옥, 강후동, 2001; U. Maeng, 2010)와 더불어 영어 읽기전략을 많이 활용할수록 영어 읽기능력이 높아 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영어 수업 시 영어 읽기전략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전략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국어와 영어 교과간의 통합 전략지도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 및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므로 영어 읽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국어 읽기 세부 전략과 영어 읽기 세부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전략 지도를 위한 국어 읽기 교육과의 연계 방안, 국어 읽기전략의 전이를 고려한 영어 읽기전략 지도 모형 등 효율적인 읽기전략 지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래, 서천수. (2007). 외국어 학습 전략 사용과 영어 학업 성취도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19(1), 135-159.
- 김혜리, 김영미. (2010). 아동문학 텍스트 기반 초등영어 읽기 전략 지도. *초등영어교육*, 16(3), 85-121.
- 박영예. (1999).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학습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영어교육*, 54(4), 281-308.
- 송석요. (2004). 어휘 능력, 배경지식, 읽기 전략이 영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연구*, 46(4), 243-262.
- 윤웅진, 원명옥, 강후동. (2001) 상위인지 읽기 방략의 훈련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13(2), 203-221.

- 이은경. (2006). *L2 지식, L1 독해력, 읽기 불안이 한국학습자들의 영어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장진태, 이지현. (2010). 중학생 영어학습자의 상·하위권 수준별 독해전략. *교과교육학연구*, 14(4), 737-758.
- 정승영. (2006). *영어 교수 학습론*. 경남: 경남대학교출판부.
- 진원화. (2008). *영어와 국어의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수원.
- Aebbersold, J. A., & Field, M. L. (1997). *From reader to reading teach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derson, J. C. (2000). *Assessing read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erson, J. R. (200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6th ed.). New York: Worth.
- Anderson, N. (1984).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A reading problem or a language problem. In J. C. Alderson and A. H. Urquhart (Ed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pp. 1-27). London: Longman.
- Block, E. L. (1986).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readers. *TESOL Quarterly*, 20(3), 463-491.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Carrell, P. L. (1991). Second language reading: Reading ability or language proficiency? *Applied Linguistics*, 12, 159-179.
- Clarke, M. A. (1980). The short circuit hypothesis of ESL reaching - or when a language competence interferes with reading performanc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4, 203-209.
- Cohen, A. D. (1990). *Language Learning: Insights for learners, teachers, and researchers*. Boston: Heinle & Heinle.
- Cohen, A. D., & Macaro E. (2007). *Language learner strate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special education: Issues in assessment and pedagogy*. Sandiago, CA: College-Hill Press.
- Cummins, J. (2009). Bilingual and immersion programs. In M. Long & C. J. Doughty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teaching* (pp. 161-181).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Cziko, G. A. (1980). Language competence and reading strategies: Comparison of first and second language oral reading errors. *Language Learning*, 30(1), 101-116.
- Davis, J., & Bestodeau, L. (1993). How do L1 and L2 reading differ? Evidence from Think aloud protocol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 459-472.

- Dole, J. A., Nokes, J. D., & Drits, D. (2008).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In S. E. Israel & G. G. Duffy (Eds.), *Handbook of research on reading comprehension* (pp. 347-372). New York: Routledge.
- Drucker, M. J. (2003). What reading teachers should know about ESL learners? *The Reading Teacher*, 57(1), 22-29.
- Dryer, C., & Oxford, R. L. (1996).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predictors of FSL proficiency among Afrikaans speakers in South Africa.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61-74). Manoa,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rler, L. (2004). Near-beginner learners of French are reading at a disability level. *Francophonie*, 18, 85-92.
- Fritzgerald, J. (1995). English-as-a-second language learner's cognitive process: A review of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5, 145-190.
- Garbe, W. (2004). Research on teaching read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44-69.
- Grabe, W., & Stoller, F.L.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reading*. Harlow: Longman.
- Goodman, S. R., & Flores, B. (1979). *Reading in the bilingual classroom: Literacy and biliteracy*. Rosslyn, VA: National Clearing for Bilingual Education.
- Hardin, V. B. (2001). Transfer and variation in cognitive reading strategies of Latino fourth-grade students in a late-exit bilingual program. *Bilingual Research Journal* 24(4) Fall, 417-439.
- Hudson, T. (1982). The effects of induced schemata in the "short-circuit" in L2 reading: Non-decoding factors in L2 reading performance. *Language Learning*, 32, 1-31.
- Kim, Eunjeo. (2009). Transfers and variations of L1 reading strategies on L2 reading.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5(2), 223-246.
- Kim, Haeyoung. (2004). Test of the interdependence hypothesis: Transfer of L1 reading onto L2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0(2), 125-149.
- Maeng, Unkyo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f reading strategies in L1 and L2: Case study of five Korean graduate students. *Language Research*, 41(2), 457-486.
- Maeng, Unkyoung. (2006a).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of EFL learners: A case study of three Korean elementary students. *Foreign Language Education*, 13(3), 187-213.
- Maeng, Unkyoung. (2006b).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among Korean elementary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25-49.
- Maeng, Unkyoung. (2010).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52(2), 95-121.

- McLaughlin, B. T., Rossman, T., & McLeod, B. (1983). Second language learning: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Language Learning*, 33, 135-58.
- Nunan, 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l ed.), New York: McGraw-Hill/Contemporary.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Park, Yunjoo. (2006). Reading and writing skill transfer to L2 literacy: A qualitative case study.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219-236.
- Sailor, M., & Price, L. R. (2010). Professional development that supports the teaching of cognitive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10(3), 301-322.
- Sarig, G. (1987). High-level reading in the first and in the foreign language: Some comparative process data. In Joanne Devine, P. L. Carrell & D. E. Eskey (Eds.), *Research in reading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105-120). Washington: TESOL.
- Song, Mi-Jeong. (1999). Read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ability. *English Teaching*, 54(3), 73-95.
- Sporer, N., Brunstein, J. C., & Kieschke, U. (2009). Improving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Effects of strategy instruction and reciprocal teaching. *Learning and Instruction*, 19, 272-286.
- Stanovich, K. E. (2000). *Progress in understanding reading: Scientific foundations and new frontiers*. New York: Guilford.
- Stevenson, M., Schoonen, R., & de Glopper. K. (2003). Inhibition or compensation? A multidimensional comparison of reading processes in Dutch and English. *Language Learning*, 53(4), 765-815.

부록

영어 읽기 전략 설문 목록

1. 나는 글을 읽기 전 무엇에 대한 글인지 먼저 훑어 본다
2. 나는 글을 읽으며 때때로 필요한 정보나 내용만 빨리 찾아 읽는다.
3.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문장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4. 어려운 문장은 문법을 생각하며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읽는다.
5.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며 읽는다.
6. 나는 글을 읽고 (마음속으로) 내용을 정리해본다.

7. 글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 등으로 표시한다.
8. 단어나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는다.
9.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보고 뜻을 추측해본다.
10. 잘 아는 주요 단어들로 글의 내용을 추측한다.
11.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되도록 사진을 찾지 않고 계속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한다.
12. 글을 읽으면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추측한다.
13. 글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한다.
14. 글을 읽을 때 사진, 그림, 그래프, 표 등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
15. 나는 읽기 문제를 풀 때 먼저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는다.
16. 나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17. 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영어 공부를 한다. (시험 잘 보기, 영어 잘하기, 대회 나가기 등)
18. 가능한 많이 영어를 읽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19. 영어 시험이나 과제가 있으면 계획을 미리 세워 관련 내용을 공부한다.
20. 나는 읽는 동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21. 나는 읽기 실력이 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22.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본다.
23. 친구들과 영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문제를 같이 푼다.
24. 미국이나 영어권 문화에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25. 영어 읽기가 재미있고 스스로 잘 한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26. 영어 책을 읽거나 시험을 잘 보았을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칭찬해준다.
27. 읽기 문제를 풀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배은실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031)203-1942/ H. P.: 010-6276-8240

Email: chennyma@hanmail.net

맹은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Tel: (031) 219-1883/ H.P.: 010-4730-5329

중학교 학습자들의 모국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전략, 영어 읽기능력... 313

Email: my5329@ajou.ac.kr

Received 15 September 2012

Revised 3 November 2012

Accepted 17 November 2012